

理念과 目標의 追求



翰林大學長 玄 勝 鍾

바다를 航行하려는 배가 船體의 정비도 완벽하게 끝마쳤고 기름도 충분히 넣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가려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방황하다 표류하게 마련이다. 또 목표는 확실하더라도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航海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노력과 비용과 시간만 헛되이 버리게 된다.

이것은 비단 항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렇다. 교육이라는 文化活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교육을 하려면 그것에 앞서서 그것을 위한 理念과 目標을 확고히 定立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이념과 목표에 焦點을 맞추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갈 때에만 뜻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그 대학 나름대로의 建學理念이나 教育目標을 심사숙고하여, 그것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학칙의 첫머리에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는 教育法의 해당 조문을 본받은 것이 많아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중에는 個性이랄까 特性이랄까 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별도로 그것을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成文化해 놓고 있는 대학도 간간히 눈에 뜨인다. 또 그렇게 글로 못박아 놓지는 않았지만, 오랜 전통을 통하여 그 대학의 特性的 理念을 顯揚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실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각 대학이 높이 내걸은 理念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具顯하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알아보기에 힘이 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 소요의 와중에서 그것을 주요한 계기로 하여 文敎部의 강화된 통제력은 대학교육의 劃一性을 불가피

하게 만들고 있으며, 한편 대학은 대학대로 소요의 재지책 강구에 대부분의 정력을 쏟느라고 교육에 있어서의 이념과 목표의 추구에는 정신을 기울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속이 걱정이 된다.

다소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저 어느 대학에서나 대동소이한 教科課程을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양과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기껏이고, 그 이상의 자기 대학의 정신적으로 特性 있는 理念과 目標의 추구에는 손을 쓸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 결과 대학마다의 특성은 稀釋되어, 國立大學과 私立大學의 교육의 차이가 없어지는가 하면, 사립 대학 상호간의 異質性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는 것만 같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는 普遍性만 강해지고, 대학간의 特殊性은 무척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획일성 또는 一樣性이 완전해지는 반면에 多樣性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묵한 필자의 소견이다.

물론 우리의 대학은 民主共和國으로서의 大韓民國의 대학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우리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教育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一般的 理念과 目標을 실현하기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교육이 보편성 내지 一樣性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 대학은 자체의 주어진 여건에서 마련한 독자적이며 특성적인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현실에 옮겨 놓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國立大學 상호간에는 몰라도,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 사이에는 거기서 자라난 사람의 氣質이나 人間型에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며, 한편 각 사립 대학의 교육 사이에는 쉽게 판별이 가능한 特異性이 있어야 마땅하고, 多樣性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각 사립 대학의 졸업생 사이에는 인간으로서의 유형에 각각 특색이 있어야 사립 대학으로서의 교육이 성공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과 다양성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民主社會의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민주 사회는 특수 속에 보편을, 다양 속에 일양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양자의 조화 속에 민주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육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大本인 이념과 목표의 추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